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4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요약하고, 이 문제 상황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 [나]~[마]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한쪽 극에는 문학적 지식인이 그리고 다른 한쪽 극에는 과학자, 특히 그 대표적 인물로 물리학자가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는 물이해, 때로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적의와 혐오로 틈이 크게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중략…) 비과학자들은 과학자가 인간의 조건을 알지 못하며, 천박한 낙천주의자라는 뿌리 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과학자들이 믿는 바로는, 문학적 지식인은 전적으로 선견지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네 동포에게 무관심하고, 깊은 의미에서는 반지성적이며, 예술이나 사상을 실존적 순간에만 한정시키려고 한다. (…중략…) 양쪽 모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건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대부분은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 찰스 스노우, 『두 문화』

[나] 문화 상대주의는 각 사회의 문화를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는 없다. (…중략…)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문화는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이 특수하다 할지라도 인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이 여겨야 한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통합 사회』

[다] 딜타이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가치와 방법론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해서만 인식 불가능한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세계를 ‘정신(Geist)’의 활동과 관련된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를 인식하는 학문들을 ‘정신과학들(Geisteswissenschafte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정신과학적 지식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

해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비교될만한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구축하려고 했다. 딜타이는 우선 자연과학들과 정신과학들의 대상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자연과 달리 정신이 갖는 역사적·사회적 현실에는 인간의 정동들(Affekte)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대상의 질적 차이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딜타이는 자연과학들에는 ‘설명(Erklärung)’이라는 방법이, 정신과학들에는 ‘이해(Verstehen)’라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명’은 물리학이나 화학이 물질세계의 구성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듯이 “어떤 현상영역에 속하는 현상들을 인과적 연관 아래에 종속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반면, ‘이해’는 어떤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삶에 깃들여 있는 정신을 파악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의 역정을 되밧아감(Nacherleben)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정신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오용득,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

[라] 양측이 모두 타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해도 개념이나 믿음, 해답을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라고 말해도 찝찝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회의론의 창시자인 피론(Pyrrhon)은 후자를 옹호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현실에서 깔끔하거나 쉬운 답이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순되는 양쪽 주장에 똑같이 설득력 있는 논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략...) 이러한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피론은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라”라는 명쾌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명백하거나 증명된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판단을 보류’해야 마땅합니다. 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답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자신이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른다”라고 말하라는 뜻이죠.

‘대화편’ 연작에 속하는 『프로타고라스』에서 플라톤은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이에게는 따스하게 느껴져도 다른 이에게는 쌀쌀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피론의 회의론 또한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판단일 뿐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회의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는 가망 없는 노력은 절망과 좌절, 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회의론은 ‘에우데모니아’ 학파에 속하며, 이는 풍부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피론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에 전념하지 않아야만 에우데모니아(행복)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상적인 현자는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입니다. 이 판단 보류는 고대 그리스어로 에포케라고 합니다.

- 조니 톰슨, 『필로소피 랩』

[마] • 인간의 마음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기수(통제된 인지 과

정)가 코끼리(자동적 인지 과정)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기수는 코끼리의 시중을 들어주도록 진화했다.

- 기수가 코끼리를 시중드는 모습은 사람들을 도덕적 당혹감에 빠뜨렸을 때 목격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은 강하게 직감하고, 그 느낌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후 정당화의 근거를 만들어 낸다. 설령 하인(추론 능력)이 아무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도 주인(직관)은 자신이 내린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델은 흠의 모델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좀 더 사회성을 불어넣은 형태이다. 사람들은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평생 모질게 애쓰는데, 도덕적 추론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이다. 내가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다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사람들이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제시문을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갈등 현상을 이해하고, 그러한 갈등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며 나아가 갈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합적·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하고자 함.

2. 문항해설

[가] 『두 문화』(스노우 저, 오영환 옮김, 사이언스북스, 15면~17면)에서 가져옴. 인문학(문학적 지식인)과 자연과학 사이의 갈등 상황을 제시함.

[나] 『고등학교 통합사회』(정창우 외, 미래엔, 212면)에서 가져옴. 상대성(문화 상대주의)의 가치와 그 한계를 밝히고, 보편성(보편 윤리적 가치)의 필요성을 지적함.

[다]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오용득, 『서강인문논총』 36집, 54면~55면)에서 가져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갈등에 대한 딜타이의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함.

[라] 『필로소피 랩』(조니 톰슨 저, 최다인 옮김, 월북, 248면~249면)에서 가져옴. 확신이 아니라 판단 보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함.

[마] 『바른 마음』(조너선 화이트 저, 왕수민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109면~110면)에서 가져옴. 인간의 마음이 직관(자동적 인지 과정)과 추론 능력(통제된 인지 과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둘 중 직관이 추론 능력에 우선함을 지적함.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1. 제시문 [가]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갈등 상황으로 요약하였는가?
2. 갈등 상황의 원인을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는가?
 - [다] :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인문학)의 ‘대상’ 및 ‘대상 인식 방법’에서의 이질성
 - [라] : 확신이 아니라 판단 보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으로 경도되면, 특히 스스로의 견해에 매몰되면,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마] : 직관적 판단의 우선성. 이에 따라 인문학은 인문학의 옳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며,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이 옳다고 판단함. 또한 직관에 따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오해가 쌓임.
3.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마]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는가?

- [나] :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인문학은 자연과학을 인정하고, 자연과학은 인문학을 인정. 더불어 보편성도 이질성 해소에 도움이 됨.
- [다] : 상대주의적 시각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다루는 ‘대상’과 ‘대상 인식 방법’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과 통함.
- [라] :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면 판단 보류를 통해 사안과 증거 등을 충분히 숙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둘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해야 함.
- [마] :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직관적 판단을 지양해야 함.

[유의사항]

- [가]~[마]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내용이 아님. 따라서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추상화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추상적·통합적 이해가 반영된 논술인지 유의할 필요 있음.
- 원인과 해소 방안 제시는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것도 가능함. 단, [나]~[마]를 활용한 것 이어야 함.

4.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적 지식인’과 ‘과학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몰이해와 왜곡된 이미지는 건설적이지 않을뿐더러 그 대부분이 오해에 기인한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제시문 [나]~[마]를 고려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다]에서 보듯이 자연과학(과학자)과 정신과학(문학적 지식인)은 ‘대상’과 ‘대상에 대한 인식 방법’이 이질적인데 이러한 이질성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라]에서 제시한 ‘판단 보류’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문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문학적 지식인과 과학자가 각자의 견해를 고집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마]에 따르면, ‘통제된 인지 과정’은 ‘자동적 인지 과정’의 시중을 드는데, 이 역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다.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대개 오해에서 기인하는데, 오해는 근거와 추론에 의한 ‘통제된 인지 과정’보다는 직감, 직관, 사회성 등을 따르는 ‘자동적 인지 과정’에서 기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적 지식인’과 ‘과학자’ 사이의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우선, [나]에서 언급하는 상대주의에 따라 상대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다]에서 언급한 ‘대상’과 ‘대상 인식 방법’의 이질성과 부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나]에서 상대주의와 함께 언급된 보편성을 추구하면 이해의 기반이 공고해지게 되어 문제 상황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문제 상황은 상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등에서 기인하는데 [라]에서 제시한 ‘판단 보류’는 왜곡된 이미지 등이 형성되거나 ‘자동적 인지 과정’이 우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제 상황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 보류를 통해 사안과 증거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추론하면 차이와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증가하는 것이다.